

요 약

- ▶ **국내 건설업체들의 저가 수주 및 리스크 감수라는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해외사업의 수익성 향상을 추구해야하는 시점이며, 이에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 리스크관리 모델의 구축이 강조됨.**
 - 세계건설시장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되었지만,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리스크관리 모델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.
 - 사업의 내·외적 특성을 반영하며, 사업의 전(全) 생애기간 동안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리스크관리 모델의 구축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▶ **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모델(안)을 제안함.**
 - 해외 단순 도급 사업뿐 아니라 대규모 EPC사업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모델(안)의 운영 절차와 핵심 프로세스, 그리고 리스크분류체계(안)를 제안하였음.
 - 정성적 평가에 따른 리스크 항목 관리 활동 우선순위 도출의 모호함, 사업 전체의 종합적 리스크 정량화의 미흡, 대응 전략 수행 후 리스크 변동량 추적의 어려움 등 기존의 국내외 리스크관리 모델의 한계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축 방법론을 제안함.

- ▶ **본고에서 제안한 리스크관리 모델(안)은 해외사업에 대한 수주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수주 역량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**
 - 기업별 역량과 각기 다른 수행 사업의 발주요건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리스크관리 모델(안)을 제안함으로써 해외 사업의 실질적인 리스크관리가 기대됨.
 - 제안된 리스크관리 모델(안)은 사업의 마스터 공정표(Master Schedule)와 연계하여 운영됨으로써 계획된 비용·일정 대비 리스크의 정량화가 가능함.
 - 해외사업 전(全) 생애주기 동안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 모델의 운영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, 사업 전체의 종합적 리스크크기 산정과 그 변동량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여 대응 계획 수립과 결과에 대한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음.

- ▶ **리스크관리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모델(안)의 구축과 함께 조직과 전산시스템 등이 시스템화되어야 함.**
 - 리스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영진의 의지뿐 아니라 훈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적합한 조직 구성이 필요함.
 - 맞춤형 모델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‘조직+절차+프로그램(s/w)’의 연결성이 체계화되고 글로벌 수준까지 도달해야 함.